

전남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한다

15개 시·군 25개 일자리사업 선정 교육·창업·창직... 유형별 57억 지원 인력양성 통해 기업 미스매치 해소 중기 고용환경 개선 등 인력난 해결

전남도가 시·군별 산업 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 활성화와 고용기회 확대를 지원하는 '2024년도 공모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한

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2월 각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진행했으며 총 15개 시·군, 25개 사업을 선정해 이 발달부터 △교육·훈련 △창업·창직 △취업연계 △산업단지 환경개선 △샌드박스 등 유형별 일자리 사업에 도·시·군비 57억 원을 지원한다.

먼저 교육·훈련 주요 사업은 석유화학 산업 현장인력양성, IT/3D 취업·창업 기술양성, 철강산업 분야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으로, 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 기업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할 예정이다.

창업·창직 사업을 통해서는 관광산업을 위한 관광식품 및 친환경 관광상품 융합 창업 지원, 크리에이터 지원 등 지역 핵심 산업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창업을 지원한다.

취업 연계 사업을 통해서는 지역 특화 맞춤형 구인·구직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 등 취업 취약 계층을 집중 지원해 빈 일자

리를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5060 커리어 리스타트(RESTART) 프로젝트를 지원해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지역사회 참여 및 공헌 기회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 내 공동 무료통근버스 운행 지원과 근로자 숙소 임차료 지원(1인 월 30만원 한도)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통한 인력난도 해소한다.

전남도는 고용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

리사업과 함께 도 공모 사업을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716명 취·창업, 13만2000여건의 일자리 연계 실적을 내 호응을 얻었다.

김선주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현장의 일자리사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고용 환경 개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 수요에 맞는 자체 일자리사업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광주시, 22~28일 기후변화주간 운영

광주시는 '제54주년 지구의 날(4월22일)'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제16회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기후변화주간은 시민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인 기후행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마다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 광주시, 자치구, 유관기관, 시민이 참여하는 소동행사와 각 기관·단체의 자체 행사, 홍보·캠페인이 진행된다.

먼저 20일 오후 2시 시청 앞에서 지구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기념식은 34개 단체·유관기관 및 시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 지구의날 경과보고,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되며, 오후에는 △자전거 대행진 △어린이 그림대회 △나무조리도구 되살리기 △플라스틱 방 탈출

△나만의 손수건 만들기 △새활용(업사이클링)셔츠 염색 만들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열린다.

또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시청 앞 사거리(등기국)부터 한국은행 앞 사거리까지 약 370m 구간이 '차없는 거리'로 운영된다.

22일 밤 8시에는 10분간 전국에서 동시에 소동행사가 열린다. 광주지역에서는 시청, 구청 등 공공기관과 100여곳의 아파트 단지가 참여한다.

기관·단체 자체 행사로는 △광주 서구 '찾아가는 갑탄서구 환경학교'(22-28일) △광주 북구 '어린이 람사르습지탐사대'(22-24일) △광주도시공사 '기후위기 환경영화제'(23-24일)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기후변화주간 환경교육' 등이 마련됐다.

노병하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시 대표단들이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의 도시재생지구인 '조나 토르토나(zona tortona)'를 방문, 공장 건물을 디자인·예술 공간으로 되살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전남도, 봄철 참진드기 감염 주의보

전남도가 나들이, 농작업 등 야외활동이 많은 봄철에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참진드기에 물린 후 5~14일 이내 고열과 오심,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으로 나타나며, 심각한 경우 혈소판·백혈구 감소에 따른 출혈,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질 수 있는 감염병이다.

참진드기는 농경지 외 텃밭, 농로, 개울, 산 등 잔디와 낮은 식물로 덮인 곳에서 주로 서식하며, 이 가운데 바이러스에 감염

된 진드기가 사람을 물어 감염시킨다.

감염자는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해 기준 전국 치명률도 평균 18.7%로 높아 4~11월 고위험 시기에 위험군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전남에선 최근 3년간 39명의 환자가 발생해 15명이 숨졌다. 전국적으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895명이 발생했고, 그 중 355명이 사망했다.

도 관계자는 "야외활동 후에는 옷을 털어 세탁한 뒤 샤워하고, 발열·근육통·구토·설사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곽지혜 기자

전남도, 소방관 방화복 세탁사업 '호응'

전남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해 마련한 '소방관 방화복 세탁사업'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소방 방화복은 특성상 일반 세탁이 어려워 특수 세제를 사용해 소방관이 직접 방화복을 세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를 저소득층 사업과 연계해 일자리 생산과 소방관 복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된 것이다.

세탁사업은 목포·순천·화순·완도지역 자활센터 등 4개소에서 실시하며 각 세탁사업단을 구성해 자연 건조가 가능한 공간의 사업장을 마련했다. 전남도는 각 센터에 방화복 전용 세탁기 및 건조기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자활기금에서 2억 원을 지원했다.

세탁사업은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했으며 현재 전남 20개 소방서와 세탁물 계약(2억3160만원)을 체결했다.

3월 말 현재까지 총 699벌(화순 190벌·목포 201벌·완도 151벌·순천 157벌)의 소방방화복을 세탁했으며 자활근로 참여자 21명의 새 일자리가 창출됐다.

소방관 방화복 세탁사업은 특히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관에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세탁기가 아닌 소방용품 시험인증(KFI)을 받은 세탁기에 방화복 전용 세제를 사용하며, 외피에 묻은 이물질은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처리한 후 내피와 외피를 별도 세탁해 자연건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방화복의 훼손 정도가 적어 환영받고 있다.

각 세탁사업단에서는 1주일에 1~2회 각 소방서와 119센터에 직접 수거·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어 소방관의 수고로움을 덜어주고 있다.

곽지혜 기자

광주시 대표단, 밀라노·토리노 도시재생디자인 시찰

폐산업시설, 문화예술공간 탈바꿈 강 시장 '예술 접목 재생모델 구상'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강기정 시장 등 광주시 대표단이 15~16일(현지시간) 토리노 복합문화공간과 밀라노 도시재생지구를 찾아 도시재생을 통한 '미래 광주' 구상에 나섰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옛 전방·일신방직 등 광주의 대규모 유희산업시설 개발이 복합쇼핑몰 등으로 가시화하고, 구도심의 크고 작은 도시재생사업이 한창인 가운데 미래 광주 도시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강 시장 등 대표단은 16일(현지시간) 밀라노 서남부에 위치한 '조나 토르토나(zona tortona)'를 방문, 유희산업시설(공장) 밀집 도시가 디자인·예술 등 콘텐츠와 민간 중심의 도시재생을 통해 세계적인 디자인 도시로 변모하게 된 과정에 주목했다.

제강공장, 송전소 등이 있던 산업지구 토르토나는 1970년대 이후 산업환경 변화

로 수만평에 이르는 공장지대가 폐허 같은 유희산업시설로 전락했다. 1980년대 후반 들어 사진가, 디자이너, 예술가, 건축가들이 자발적으로 공장건물을 리모델링해 디자인스튜디오, 갤러리, 기획사, 쇼룸, 작업실, 카페 등으로 채워가면서 토르토나 지구는 다시 활력을 찾기 시작했다.

특히 매년 4월 개최되는 '밀라노 디자인 위크' 기간 동안 토르토나 지구는 거대한 전시·이벤트장으로 변신, 30만명이 넘는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 명품브랜드 쇼룸들이 속속 들어서 등 이탈리아의 대표적 문화예술 중심지로 재탄생하고 있다. 대표단은 또 일본 카와시마 셀콘의 '백의흑' 전시와 우리나라 전시작가인 '홍철 원더랜드'의 공간아트, 삼성관 등을 둘러봤다.

앞서 15일에는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히는 토리노의 '링고토(Lingotto) 빌딩'을 시찰했다.

토리노시는 쇠락한 도시를 관광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1993년부터 크고 작은 시설물에 대해 대대적인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링고토는 1980년대 후반 자동차산업이 쇠퇴하면서 고민에 빠진 토리노시가 공공디자인 정책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은 대표적 사례다. 1926년 설립된 링고토 피아트자동차공장을 1994년부터 개조해 쇼룸, 호텔, 갤러리, 컨퍼런스센터 등으로 변모했다.

오래된 건물 외관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내부를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재탄생한 링고토는 토리노시의 대표적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지역산업 쇠퇴에 따른 대안을 공공디자인에서 찾은 토리노시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연평균 관광객이 60%씩 증가할 정도로 관광도시로 탈바꿈했다.

강 시장은 "밀라노와 토리노를 둘러보면서 디자인과 문화예술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었다"면서 "성공적인 복합문화공간 개발, 침체된 구도심 재생, 이와 연계한 관광도시 조성 등을 위해 디자인과 문화예술을 접목한 문화재생모델을 구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광주시, 청년 취업전략 설계 '청년 업+' 특강

광주시에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자기 이해를 통해 취업 전략을 설계할 수 있도록 '청년 업(UP)+' 특강을 20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연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청년UP+' 특강은 15세부터 39세 청년 총 160여명(강의당 40명)을 대상으로 △MBTI 분석과 진로 탐색 △맞춤 색상(퍼스널 컬러) 진단과 이미지 상담(컨설팅) △올해 채용

경향과 취업 준비 전략 △공감 의사소통 등을 설명한다.

이번 특강은 광주시가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7억원을 확보한 광주 청년일자리스테이션의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청년일자리스테이션은 15세부터 39세까지 지역 청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일자리 플랫폼으로 청년의 진로 탐색과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정서

와 신체 활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과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지역 청년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아시아문화전당 근처에 1호점을 오는 30일, 상무지구에는 2호점을 5월중 각각 개소해 본격 운영한다.

'청년 업(UP)+' 특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청년정책플랫폼과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18일 밤 11시 30분까지 온라인 링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노병하 기자